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88차 CATI조사

제103차 ARS조사

105차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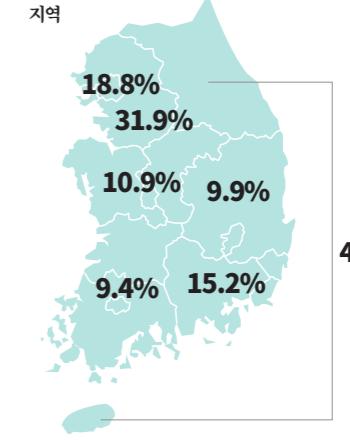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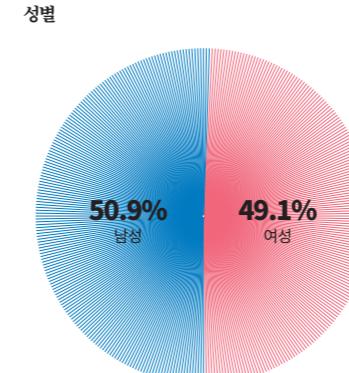
CATI & ARS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24.3	42.9	25.6	7.2
ARS	26.1	40.9	25.6	7.3
	진보	중도	보수	잘모름

CATI 조사개요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3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합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기기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0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3.1% [총 통화시도 7,643명]
조사기간	2024년 10월 25일 ~ 10월 26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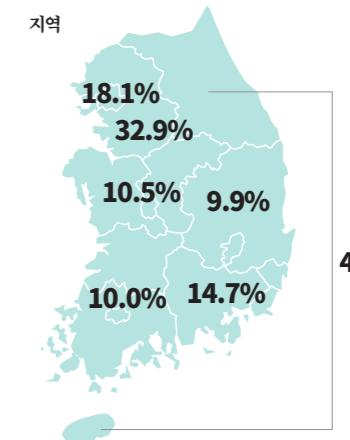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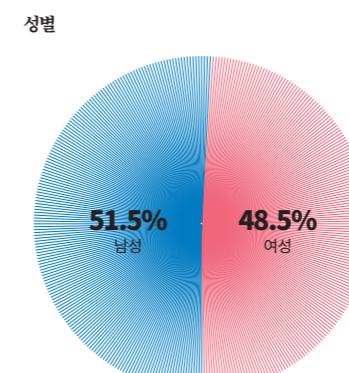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조사한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3	100.0	1003	100.0	1.00
성별	남성	511	50.9	496	49.5
	여성	492	49.1	507	50.5
연령	18-29세	161	16.1	157	15.7
	30대	151	15.1	149	14.9
	40대	175	17.4	177	17.6
	50대	197	19.6	197	19.6
	60대	174	17.3	175	17.4
	70세이상	145	14.5	148	14.8
지역	서울	189	18.8	187	18.6
	인천경기	320	31.9	322	32.1
	대전세종충청	109	10.9	108	10.8
	광주전라	94	9.4	98	9.8
	대구경북	99	9.9	97	9.7
	부산울산경남	152	15.2	149	14.9
	강원제주	40	4.0	42	4.2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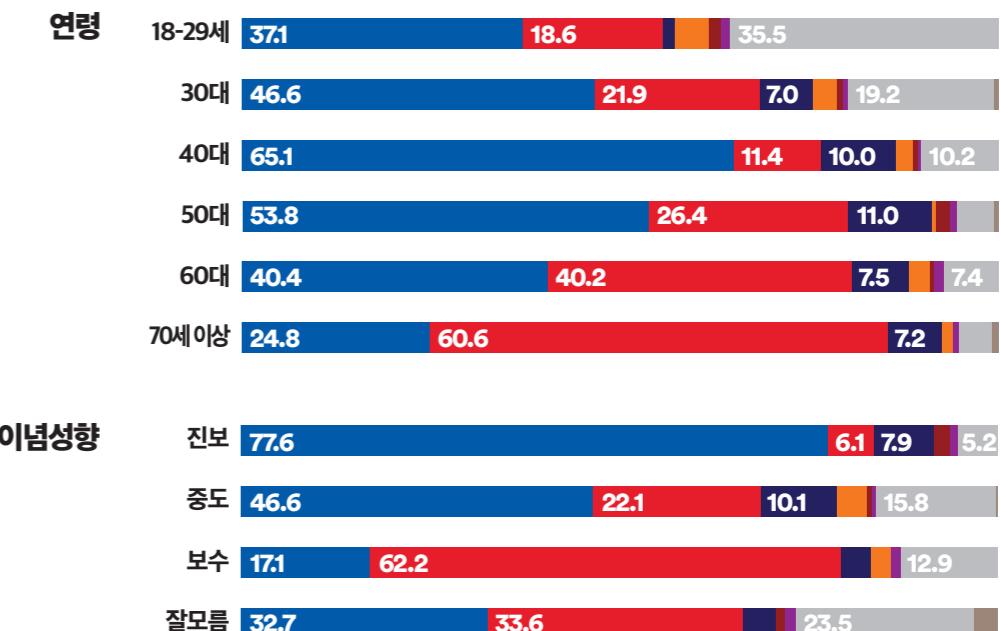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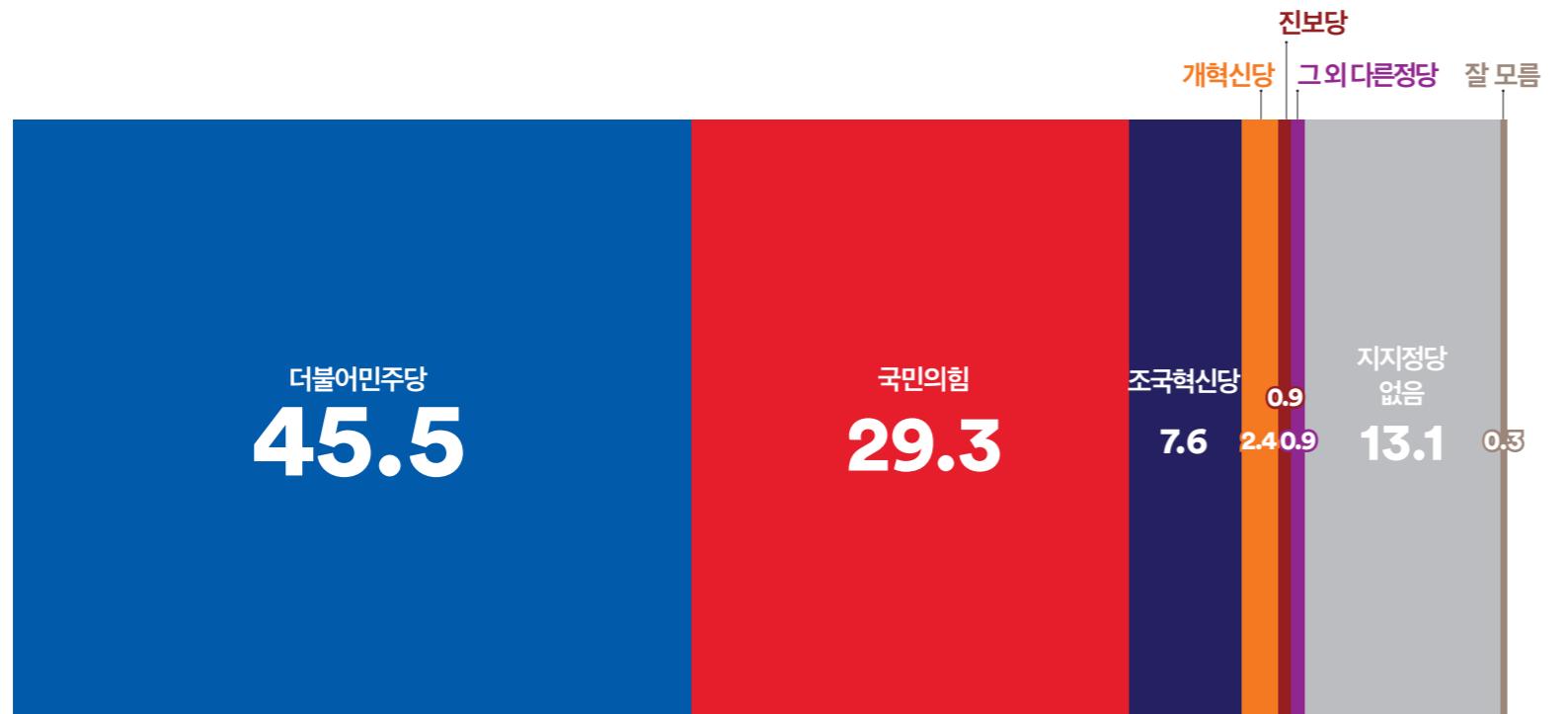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2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합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0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2.2% [총 통화시도 44,806명]
조사기간	2024년 10월 25일 ~ 10월 26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한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성별	남성	516	51.5	495	49.4
	여성	486	48.5	507	50.6
연령	18-29세	114	11.4	157	15.7
	30대	143	14.3	149	14.9
	40대	191	19.1	177	17.7
	50대	214	21.4	197	19.7
	60대	189	18.9	174	17.4
	70세이상	151	15.1	148	14.8
지역	서울	181	18.1	187	18.7
	인천경기	330	32.9	322	32.1
	대전세종충청	105	10.5	107	10.7
	광주전라	100	10.0	98	9.8
	대구경북	99	9.9	97	9.7
	부산울산경남	147	14.7	149	14.9
	강원제주	40	4.0	42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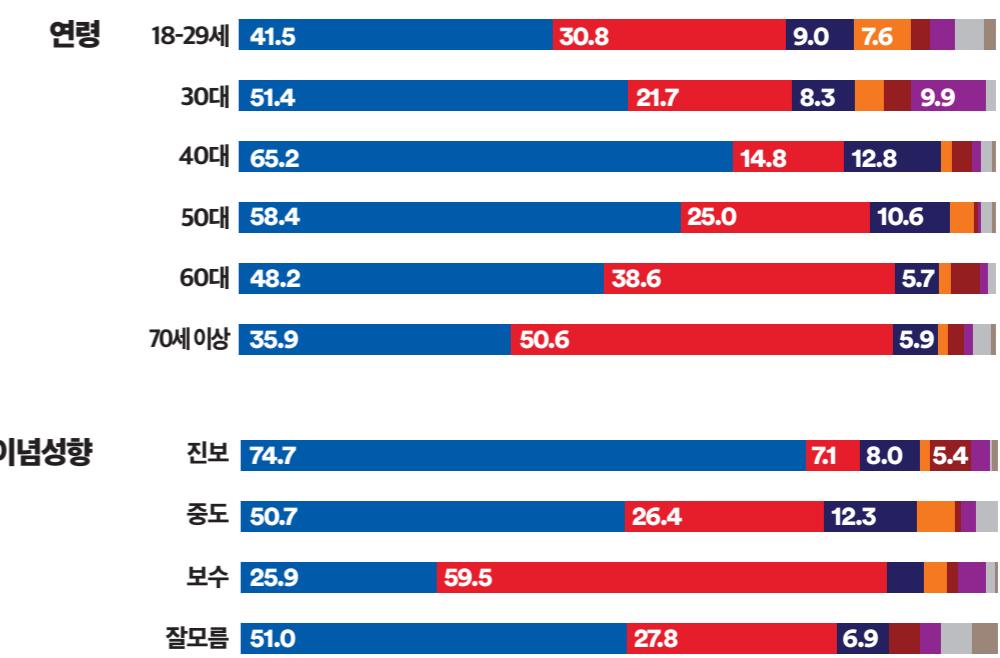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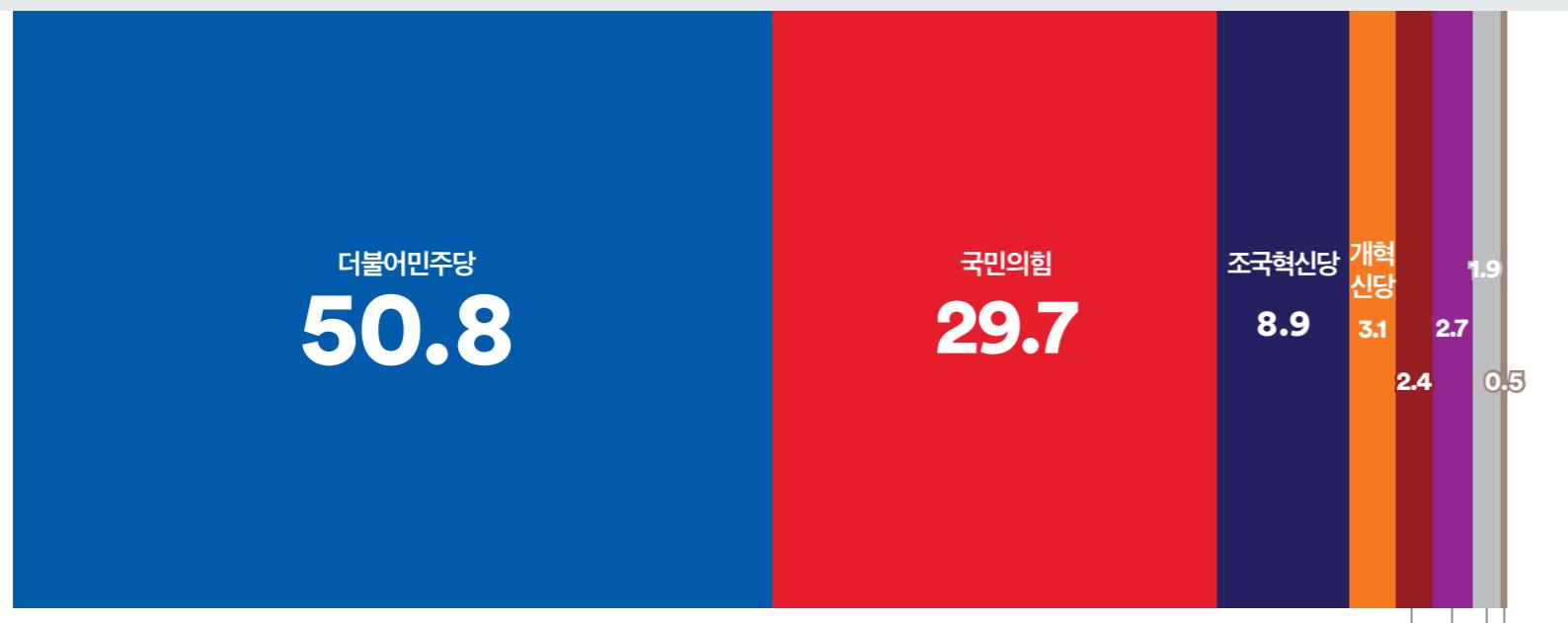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87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4%p 하락, '국민의힘' 2.9%p 상승, '조국혁신당' 1.5%p 하락

102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2%p 하락, '국민의힘' 1.1%p 상승, '조국혁신당' 0.1%p 상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16.2%p, ARS 21.1%p(지난 조사: CATI 19.5%p, ARS 23.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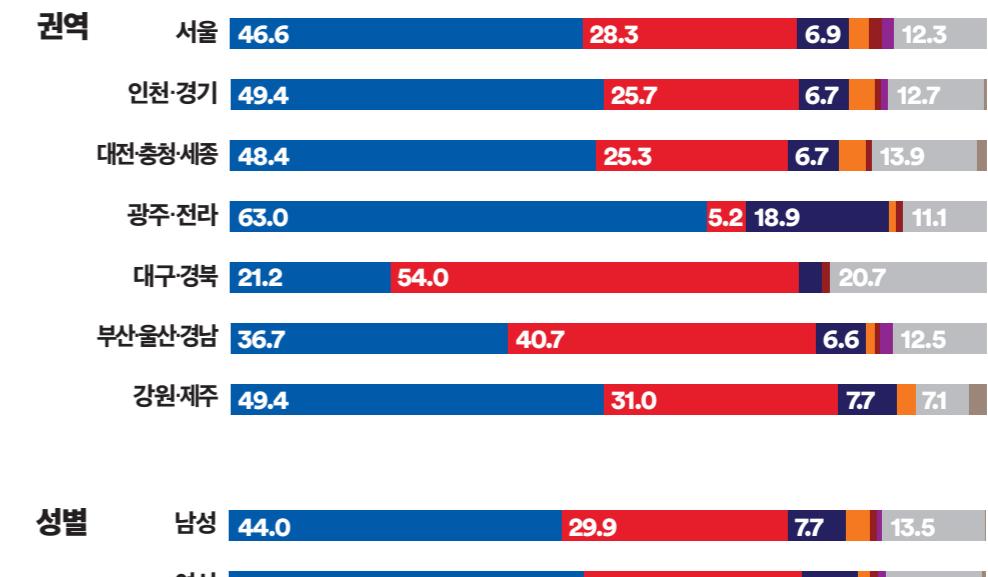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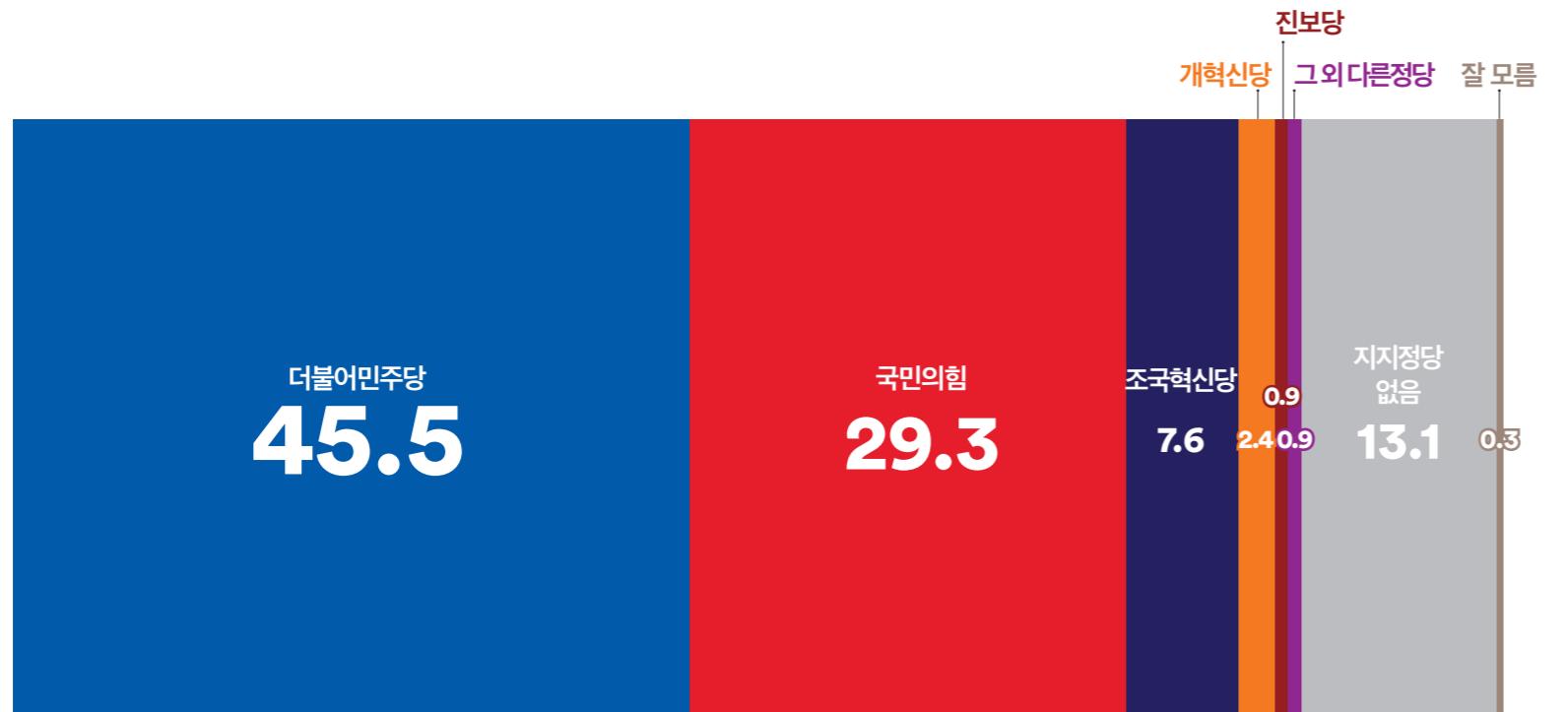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23.8%p, ARS 30.0%p(지난 조사: CATI 28.6%p, ARS 32.2%p)

진보당
개혁
신당
그 외 다른정당
잘 모름
지지정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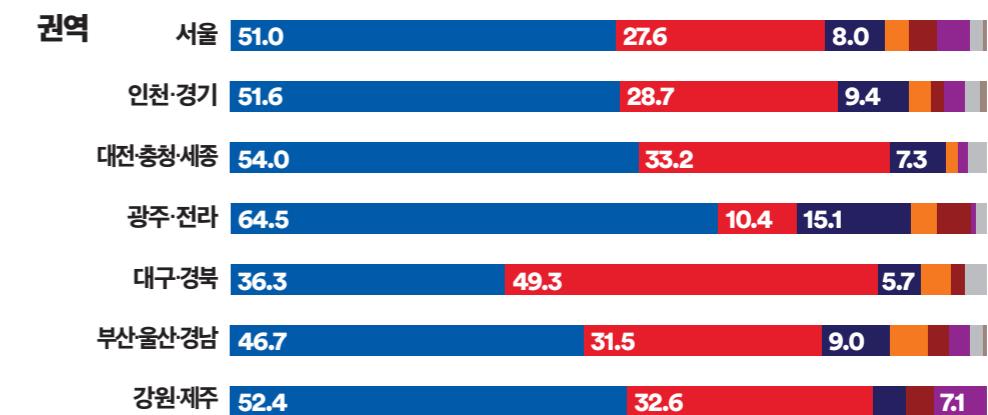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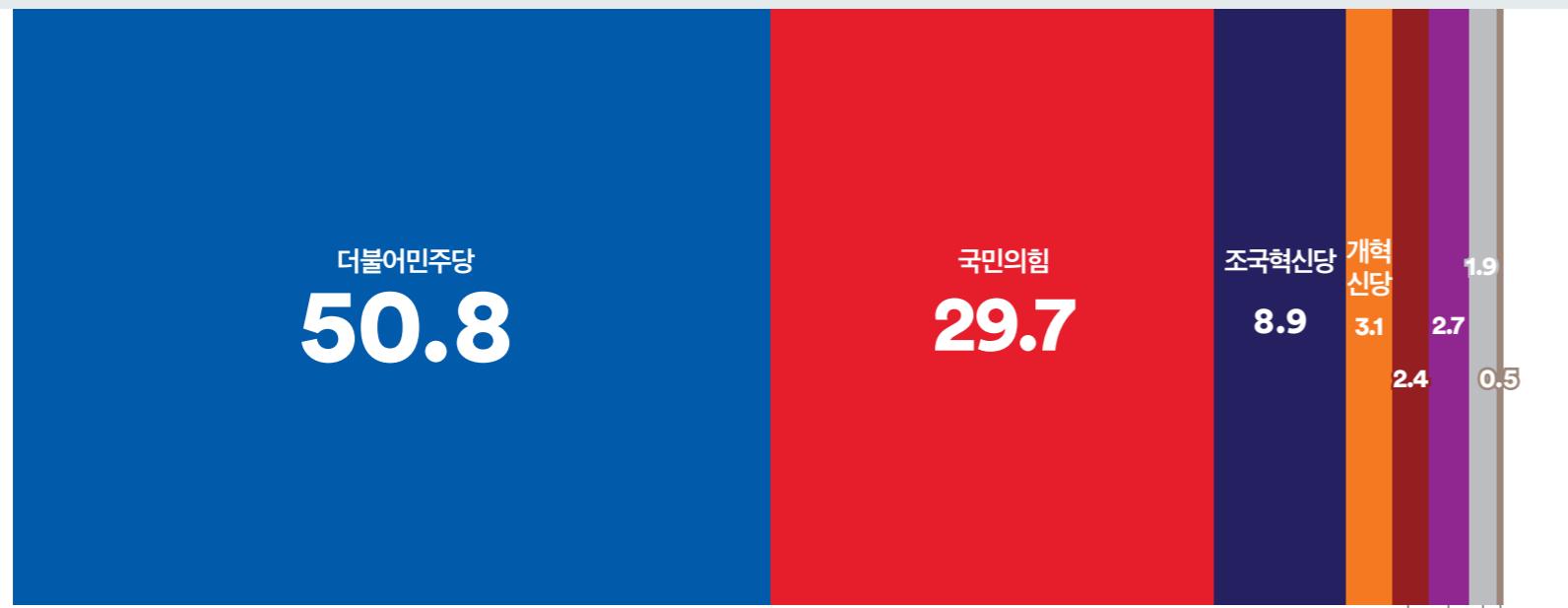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정당	잘 모름	지지정당 없음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CATI조사에서는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앞섰

ARS조사에서는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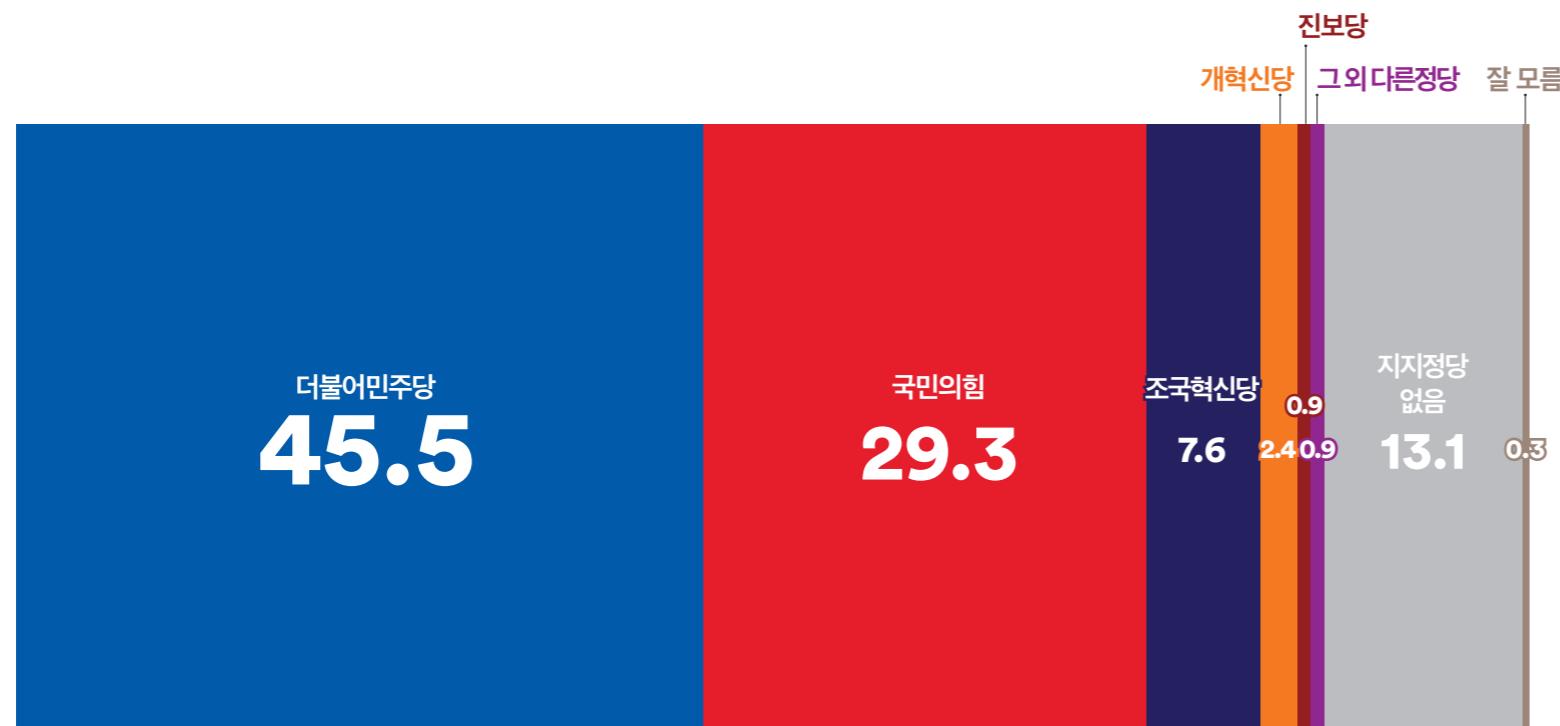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우세

진보당
개혁신당
그외 다른정당
잘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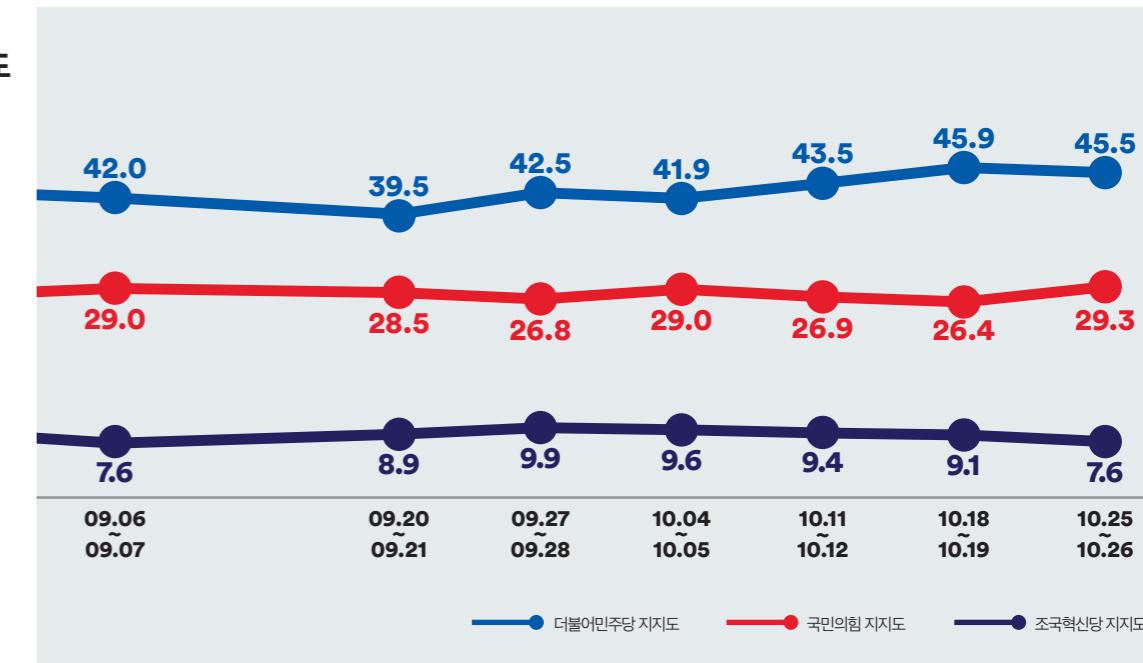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외 다른정당	잘모름	지지정당 없음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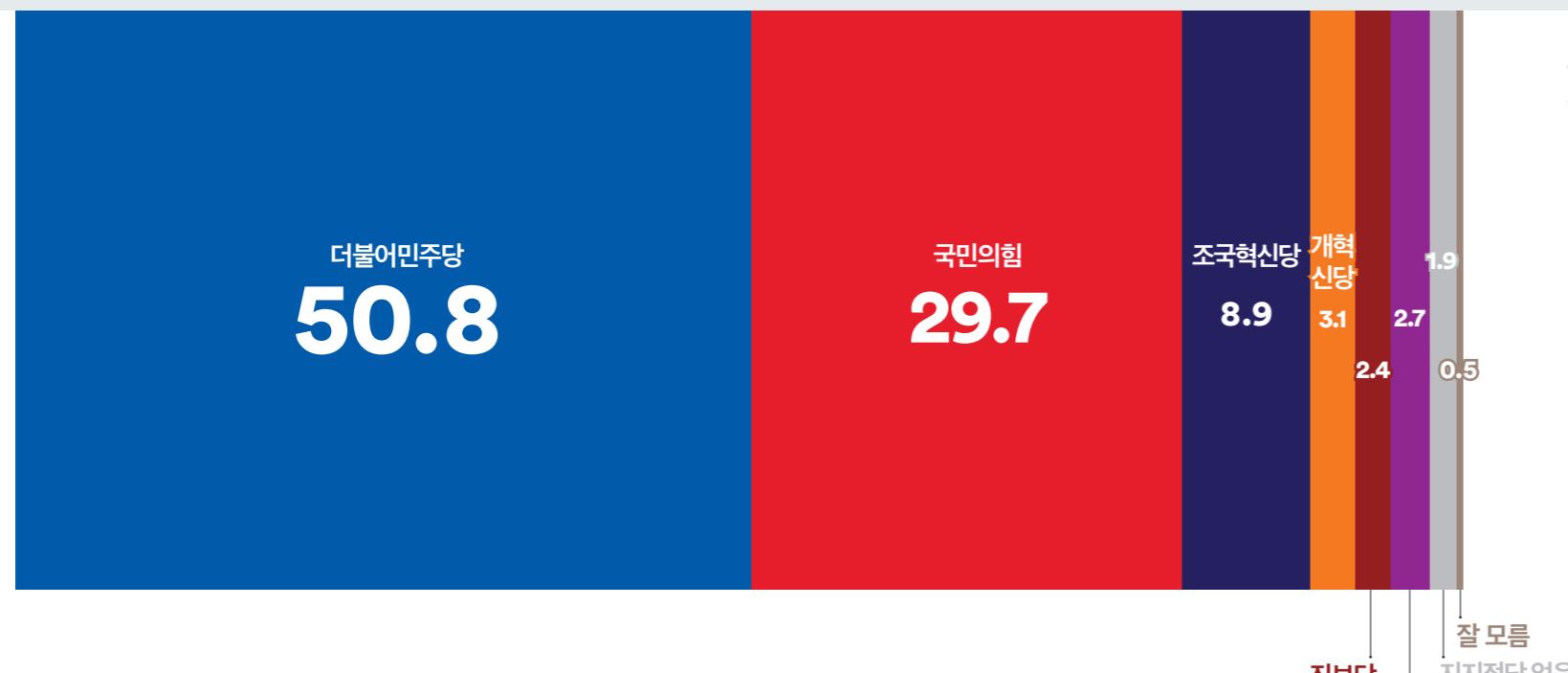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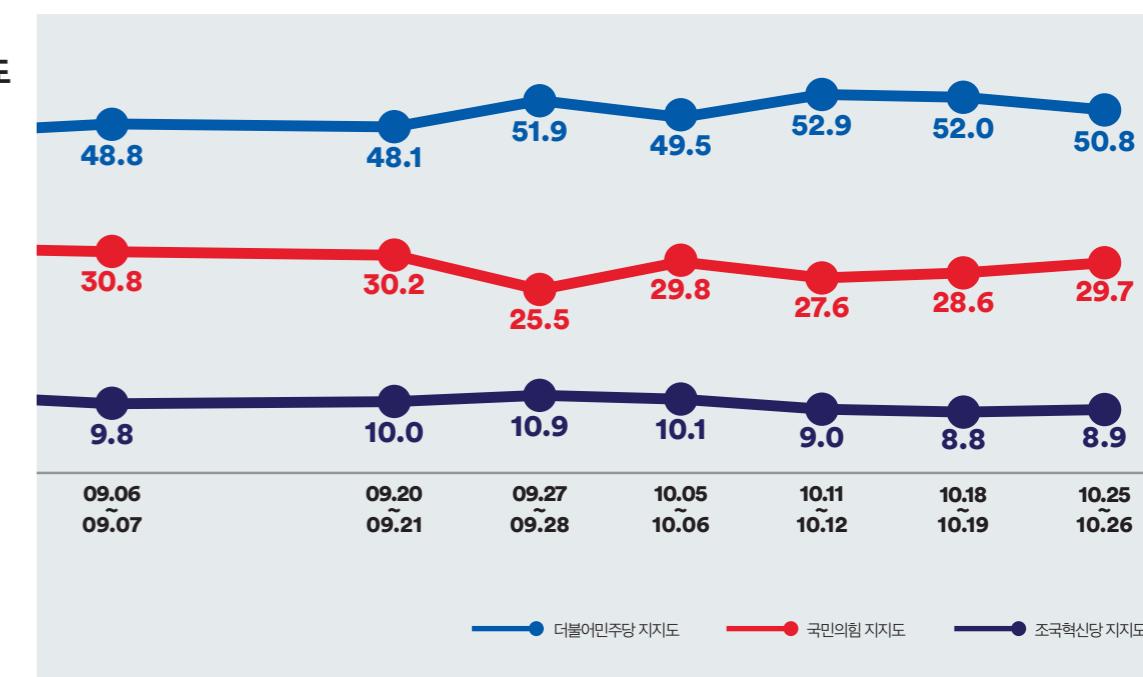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주차별
정당지지도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6.6%,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10.1%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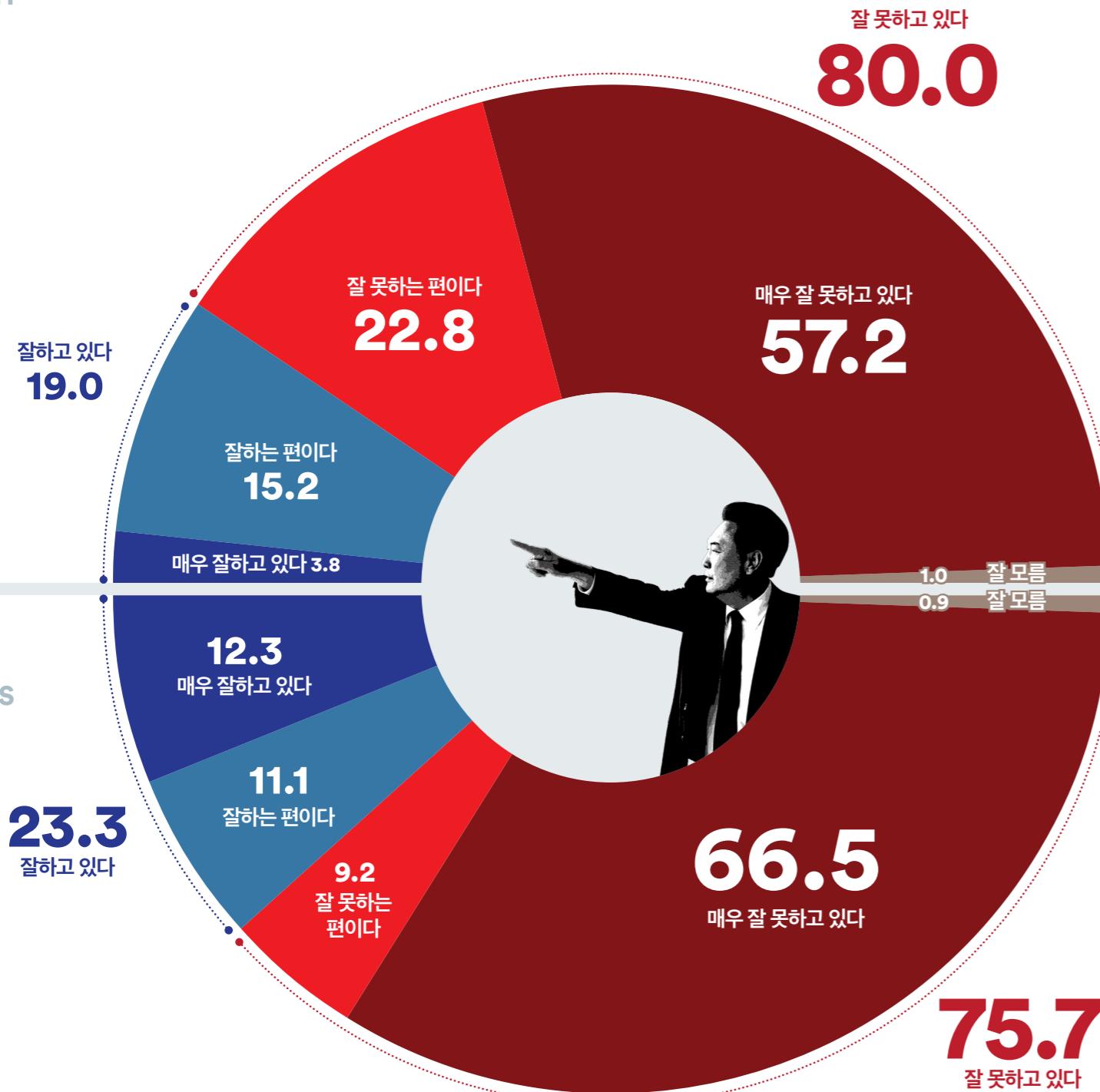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50.7%, '국민의힘' 26.4%, '조국혁신당' 12.3%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4.6%p(87차: 35.5%p), ARS 36.6%p(102차: 37.5%p)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외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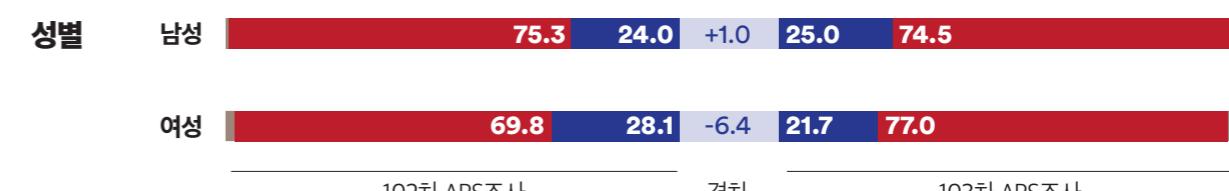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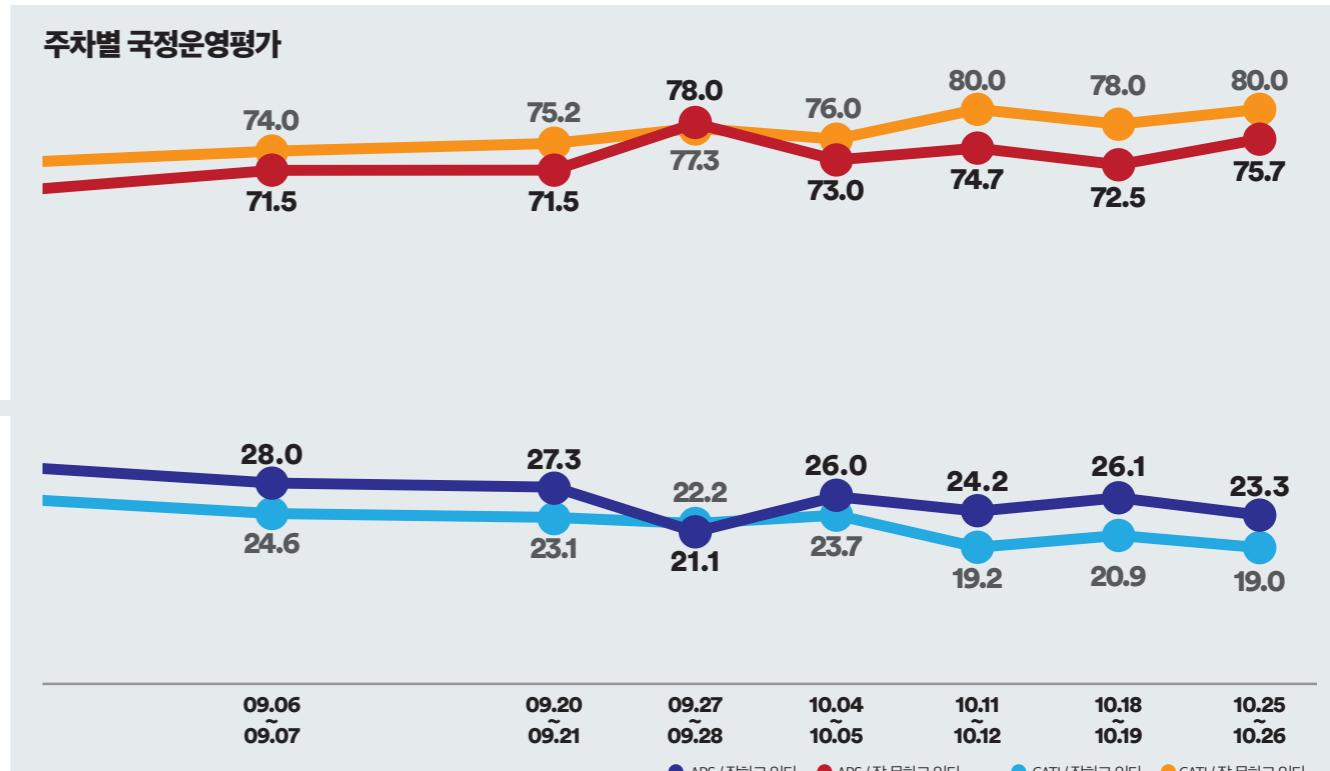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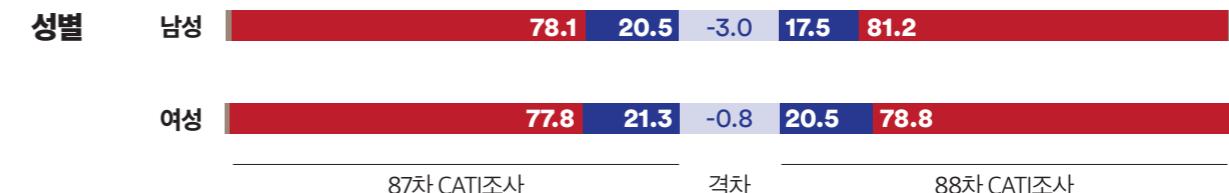


87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9%p 하락, '부정' 평가 2.0%p 상승(격차 61.0%p)

102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2.8%p 하락, '부정' 평가 3.2%p 상승(격차 52.4%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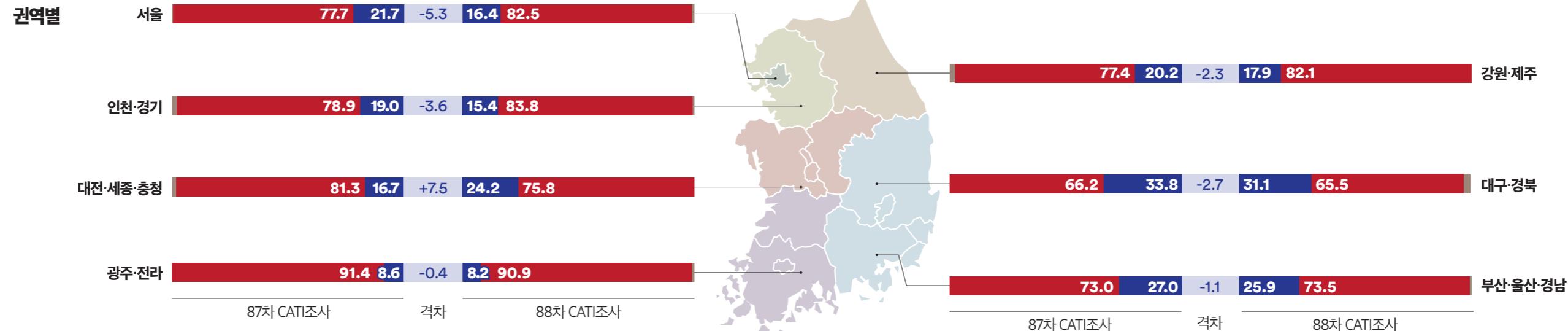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하고, 평가 간 격차는 CATI 71.7%p(지난 조사: 71.5%p), ARS 61.7%p(지난 조사: 52.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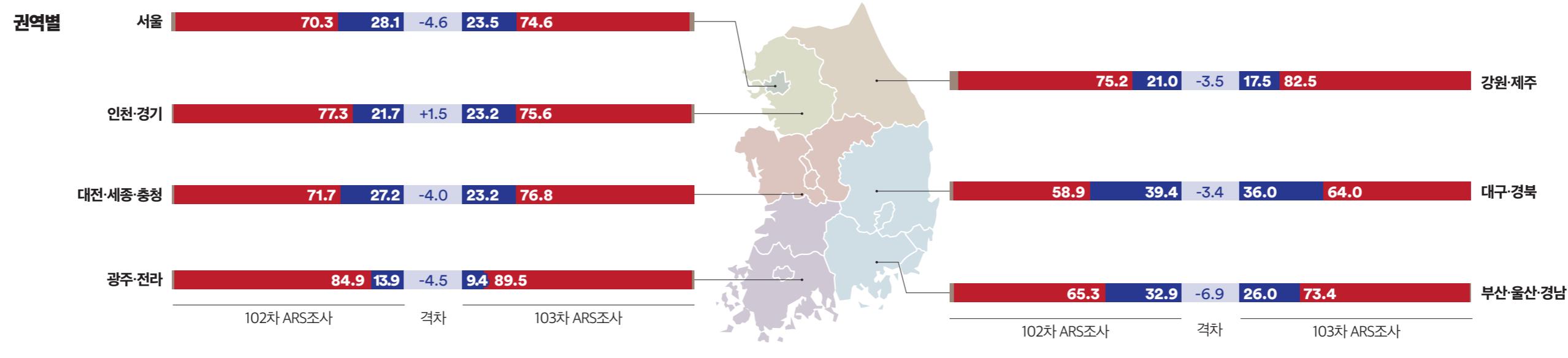
격차: CATI & ARS 조사에서 '잘 못하고 있다' 평가 간 차이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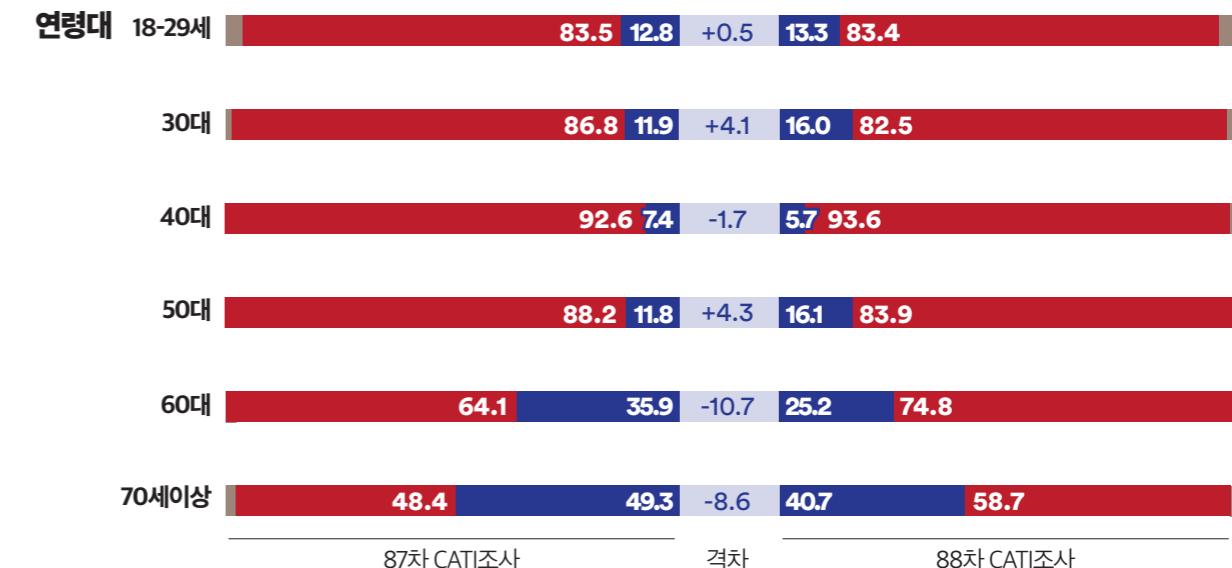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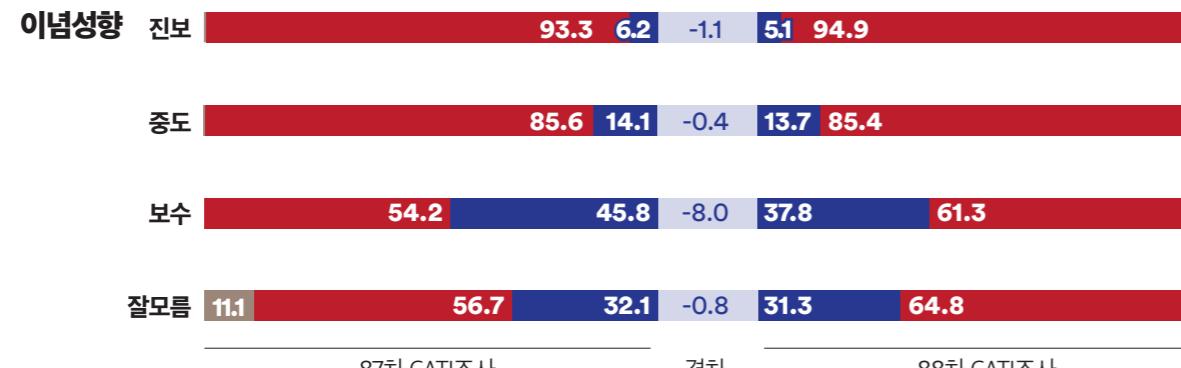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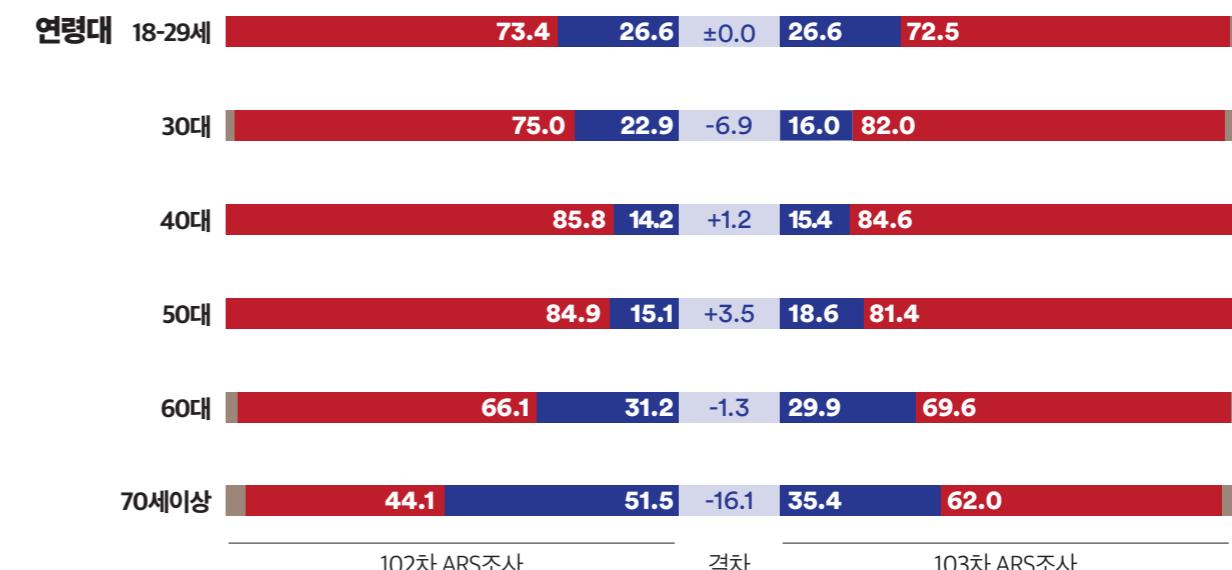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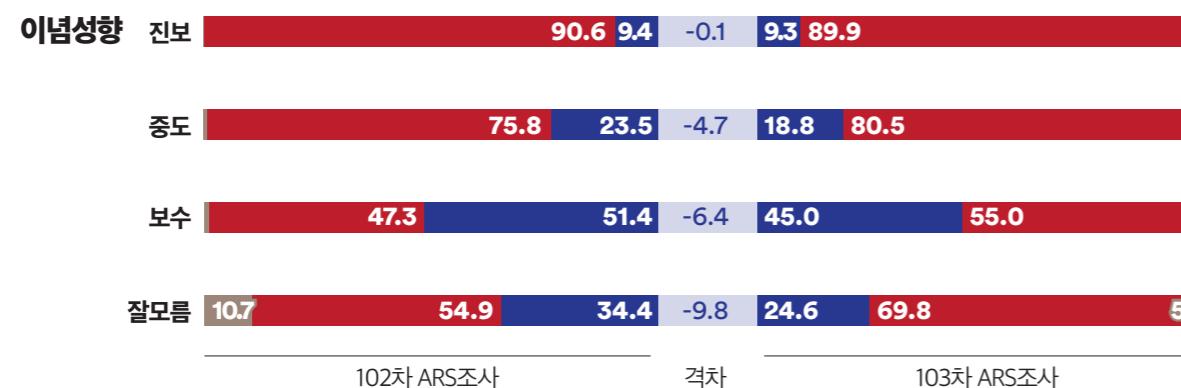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우크라이나 살상용 무기 지원

Q. 국정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발표한 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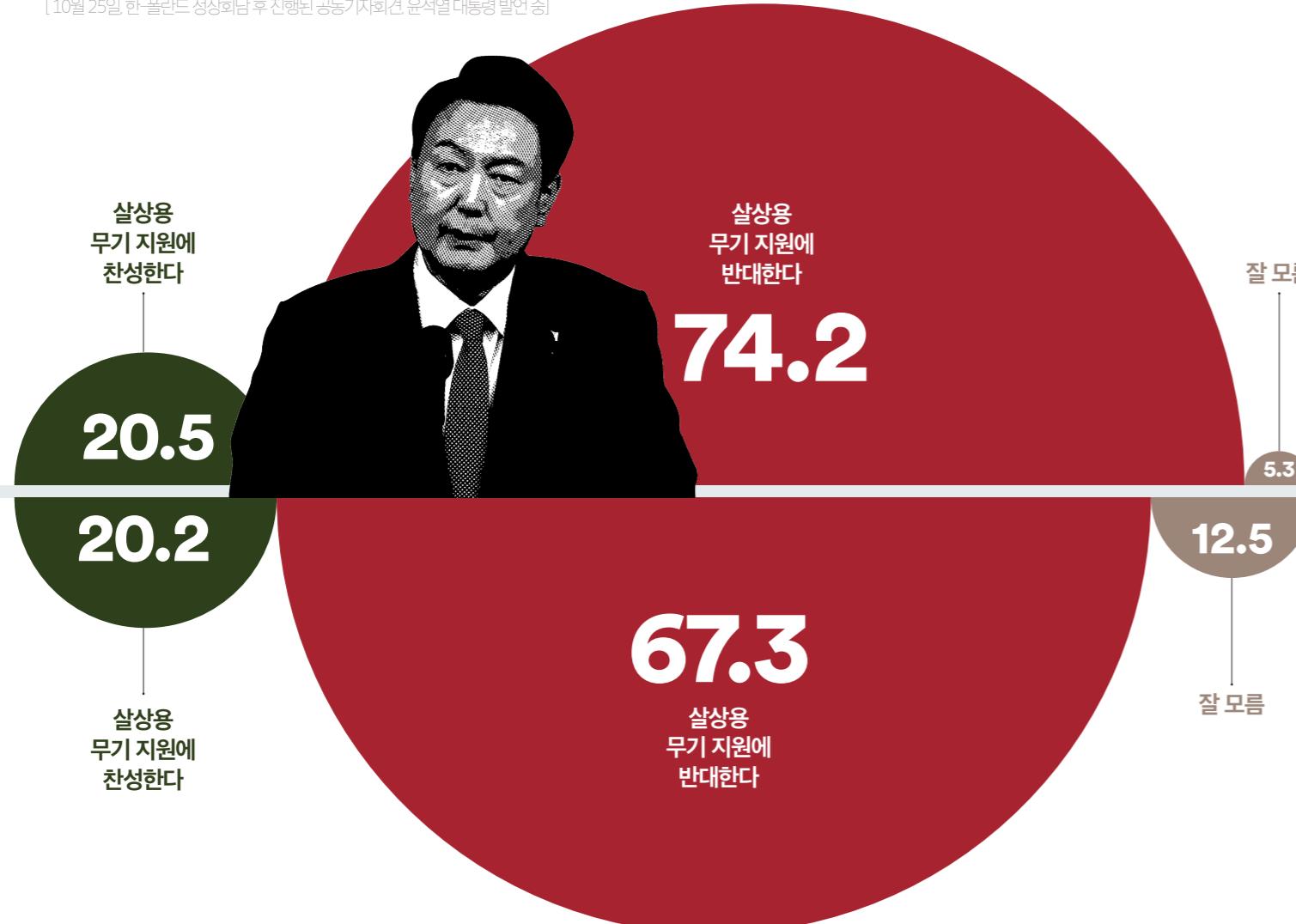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CATI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나갈 수 있습니다.”

[10월 25일 한·폴란드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53.7%p, ARS 47.1%p)
모든 권역, 연령, 성별에서 '반대'의견이 우세했으나 18-29세 남성의 경우 찬·반 의견이 팽팽하거나 '반대'가 소폭 앞서는 정도
무당층과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 '무기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은 CATI조사에서는 '반대'의견이 오차범위 내 소폭 앞서고, ARS조사에서는 '찬성'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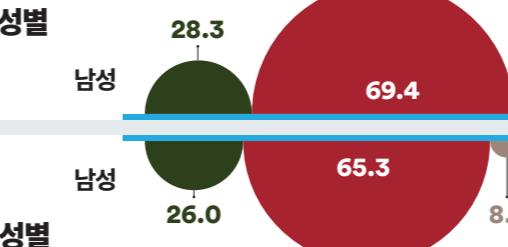
연령대

18-29세	33.3	59.3	7.4
18-29남성	46.6	49.5	3.9
18-29여성	19.2	69.7	11.2
30대	21.3	74.0	4.7
30남성	31.6	64.8	3.6
30여성	10.3	83.9	5.8
40대	8.3	89.9	1.8
50대	14.7	81.0	4.3
60대	24.0	72.4	3.6
70세이상	24.4	64.3	11.3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6.4	89.7	3.9
국민의힘	42.5	50.1	7.4
조국혁신당	5.1	87.6	7.3
개혁신당	46.1	53.9	0.0
진보당	25.6	74.4	0.0
그외다른정당	34.8	65.2	0.0
지지정당없음	24.2	70.0	5.8
잘모름	100.0	0.0	0.0

성별



연령대

18-29세	27.1	60.6	12.3
18-29남성	42.4	49.2	8.3
18-29여성	10.7	72.7	16.5
30대	17.0	75.0	8.0
30남성	22.8	65.9	11.3
30여성	10.7	84.8	4.5
40대	12.7	79.8	7.5
50대	19.6	72.6	7.8
60대	25.2	63.9	10.9
70세이상	20.3	48.5	31.3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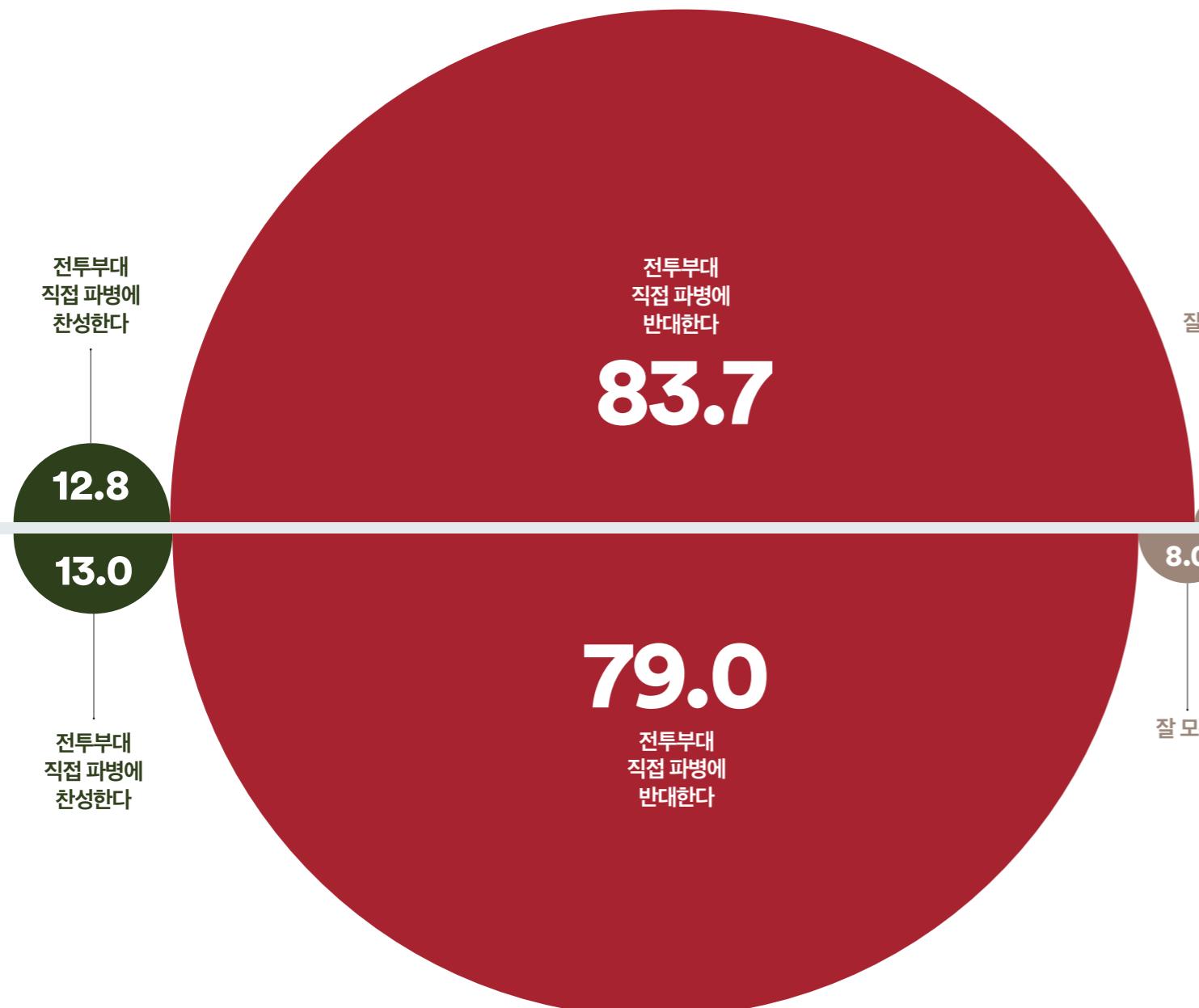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6.7	86.4	6.9
국민의힘	48.8	27.5	23.8
조국혁신당	8.4	86.1	5.6
개혁신당	25.9	62.1	12.0
진보당	7.4	84.4	8.1
그외다른정당	18.0	71.1	10.9
지지정당없음	5.0	69.5	25.5
잘모름	82.5	0.0	17.5

■ 살상용 무기지원에 찬성한다 ■ 살상용 무기지원에 반대한다 ■ 잘 모름

우리정부의 전투부대 파병

Q.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투부대를 직접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전투부대 직접 파병에 반대'(응답 간 격차: CATI 70.9%p, ARS 66.0%p)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성별, 연령층에서 '반대'가 우세하지만 18-29세 남성의 경우 '파병 찬성'비율이 타 연령에 비해 다소 높음

두 조사의 모든 이념성향층(무당층 포함)에서도 '전투부대 직접 파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전투부대 직접 파병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

앞서 질문한 '살상용 무기 지원'에 찬성한 응답자도 '직접 파병에는 반대' 의견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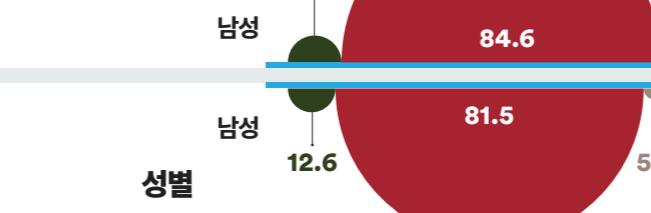
연령대

18-29세	21.9	76.5	1.6
18-29남성	29.6	69.2	1.2
18-29여성	13.8	84.2	2.0
30대	15.9	79.3	4.8
30남성	17.1	79.0	3.9
30여성	14.7	79.6	5.6
40대	5.5	92.8	1.7
50대	8.7	89.5	1.8
60대	13.2	85.0	1.8
70세이상	13.9	75.9	10.2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75	91.3	3.2
국민의힘	20.2	72.6	7.3
조국혁신당	5.1	93.7	1.2
개혁신당	12.1	83.4	4.5
진보당	11.2	88.8	0.0
그외다른정당	46.1	53.9	0.0
지지정당없음	16.7	79.0	4.3
잘모름	42.0	58.0	0.0

성별



권역

서울	8.0	81.5	10.5
인천·경기	9.5	84.7	5.8
대전·충청·세종	13.2	80.9	6.0
광주·전라	8.0	83.9	8.1
대구·경북	23.6	65.9	10.5
부산·울산·경남	23.4	68.4	8.1
강원·제주	11.4	76.3	12.3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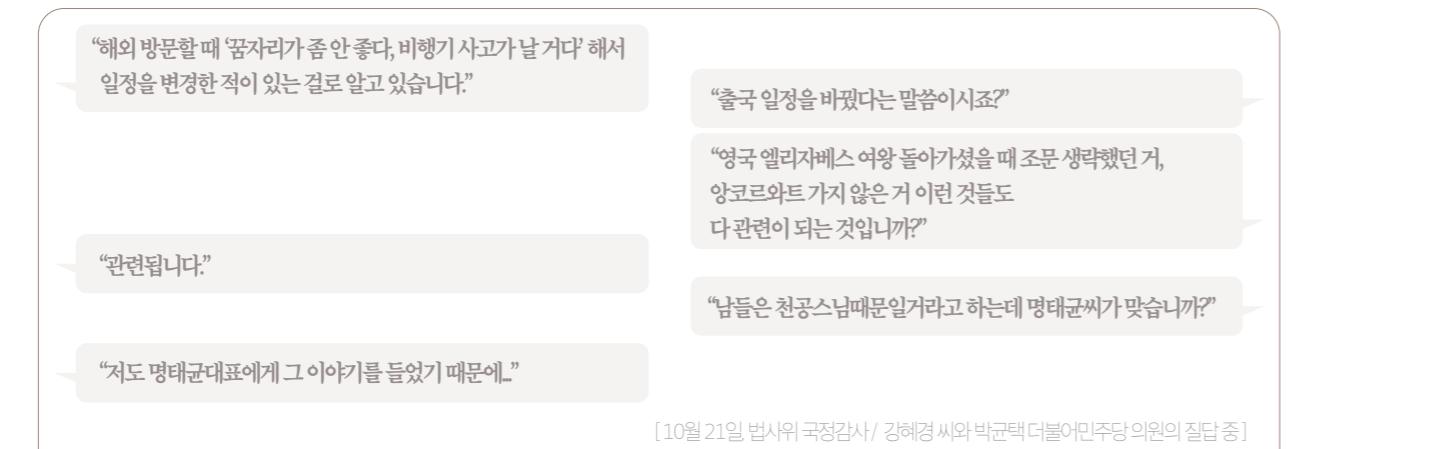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54	90.9	3.2
국민의힘	28.8	55.1	16.1
조국혁신당	5.5	89.6	4.9
개혁신당	10.0	86.8	3.2
진보당	13.8	74.2	12.0
그외다른정당	11.9	80.5	7.6
지지정당없음	13.2	69.7	17.1
잘모름	100.0	0.0	0.0

‘영적 대화’가 국정에 영향을 미쳤을까

Q.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나눈 ‘영적인 대화’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변경 등 국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영적 대화’가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일 것이다

57.1

‘영적 대화’가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26.9

잘 모름

16.0

ARS

‘영적 대화’가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일 것이다

62.5

‘영적 대화’가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24.5

잘 모름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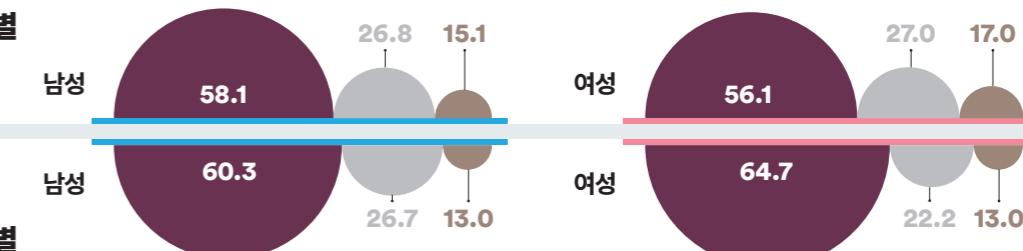
권역

서울	58.4	26.2	15.4
인천·경기	59.3	24.9	15.9
대전·충청·세종	54.7	28.7	16.6
광주·전라	71.2	13.9	14.9
대구·경북	45.1	32.5	22.4
부산·울산·경남	49.1	37.0	13.9
강원·제주	63.7	22.6	13.7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83.0	76.94
국민의힘	20.3	63.9
조국혁신당	83.4	8.3 8.4
개혁신당	59.2	20.3 20.6
진보당	69.8	19.0 11.2
그외 다른 정당	41.9	24.2 33.9
지지 정당 없음	34.4	24.8 40.8
잘 모름	29.4	70.6

성별



연령

18-29세	56.0	30.6	13.4
30대	63.3	18.8	17.9
40대	76.3	14.7	9.0
50대	73.4	19.4	7.2
60대	60.1	30.0	9.9
70세이상	40.6	35.5	23.9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89.1	71
국민의힘	12.6	68.5
조국혁신당	89.4	8.3
개혁신당	51.1	16.4
진보당	63.6	20.7
그외 다른 정당	52.1	24.6
지지 정당 없음	45.5	14.6
잘 모름	41.9	58.1

응답자 5명 중 3명 정도는 ‘영적 대화가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30.2%p, ARS 38.0%p)

CATI조사의 TK, PK와 ARS의 TK에서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사실일 것’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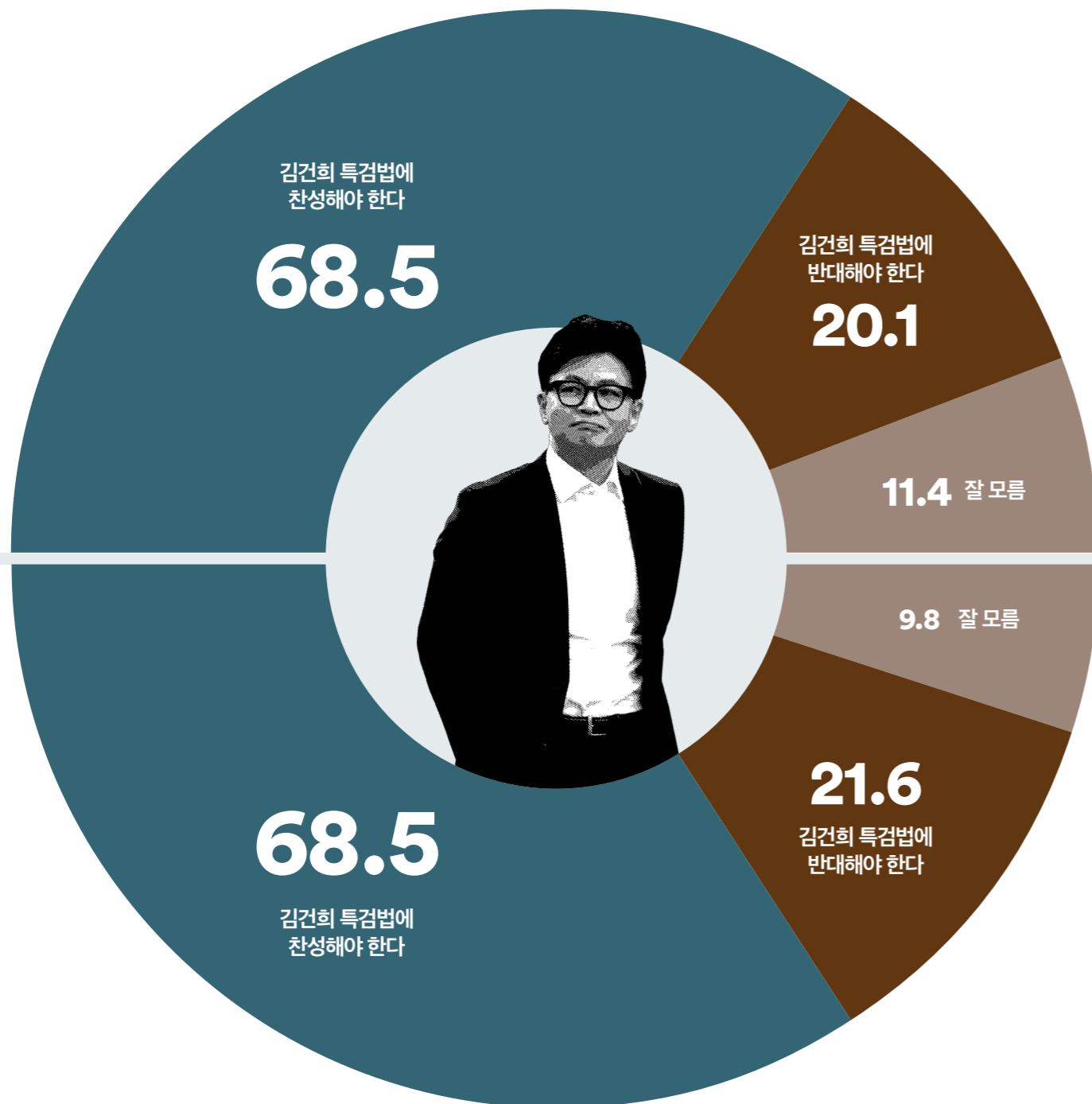
두 조사의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사실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응답 간 격차: CATI 43.6%p, ARS 55.9%p)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대응 방향

Q.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10명 중 7명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48.4%p, ARS 46.9%p)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연령에서 '찬성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ARS 조사에서는 '반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격차 21.5%p), CATI조사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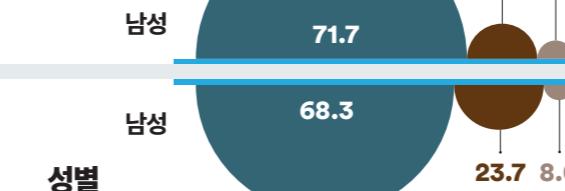
연령

18-29세	50.4	22.3	27.3
30대	69.4	16.2	14.4
40대	87.8	7.3	
50대	75.7	20.5	
60대	69.1	26.2	
70세이상	53.2	29.4	17.4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86.7	7.8	5.4
국민의힘	44.3	42.6	13.2
조국혁신당	94.5		
개혁신당	91.7		
진보당	74.4		25.6
그외다른정당	52.3	35.5	12.3
지지정당없음	42.2	26.1	31.7
잘모름	29.4		70.6

성별



정당지지도

서울	66.7	23.0	10.2
인천·경기	69.5	20.2	10.3
대전·충청·세종	70.6	19.5	9.8
광주·전라	76.6	18.5	
대구·경북	57.2	30.1	12.6
부산·울산·경남	70.5	20.5	9.1
강원·제주	64.2	23.5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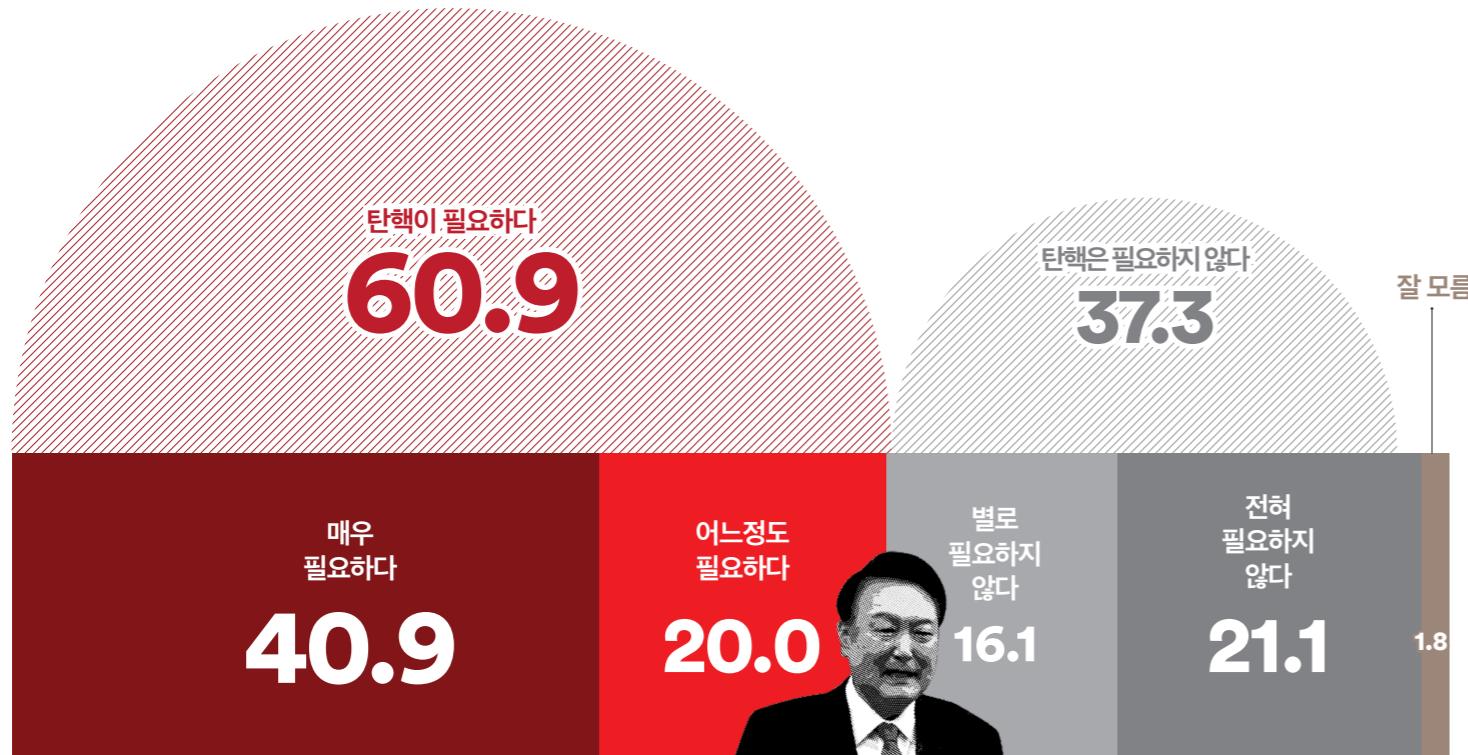
권역

잘모름	41.9	34.8	23.3
찬성해야 한다			
반대해야 한다			
잘모름			

탄핵필요성

Q.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RS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5명 중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23.6%p, ARS 37.4%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명 중 8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CATI 82.3%, ARS 81.6%)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CATI조사의 불필요하다 우세, ARS조사에서는 비등하게 갈림

두 조사의 보수층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격차: CATI 34.2%, ARS 12.1%)

권역

서울	59.2	39.1
인천·경기	64.8	34.3
대전·충청·세종	64.1	32.6
광주·전라	79.3	19.7
대구·경북	38.9	55.8
부산·울산·경남	53.9	44.7
강원·제주	63.7	36.3

연령

18-29세	53.3	44.3
30대	63.6	35.0
40대	84.2	14.5
50대	68.1	30.4
60대	53.5	45.8
70세이상	37.7	58.5

권역

서울	67.9	29.2
인천·경기	66.2	30.6
대전·충청·세종	72.0	26.3
광주·전라	82.4	14.8
대구·경북	49.9	45.4
부산·울산·경남	63.8	33.7
강원·제주	76.9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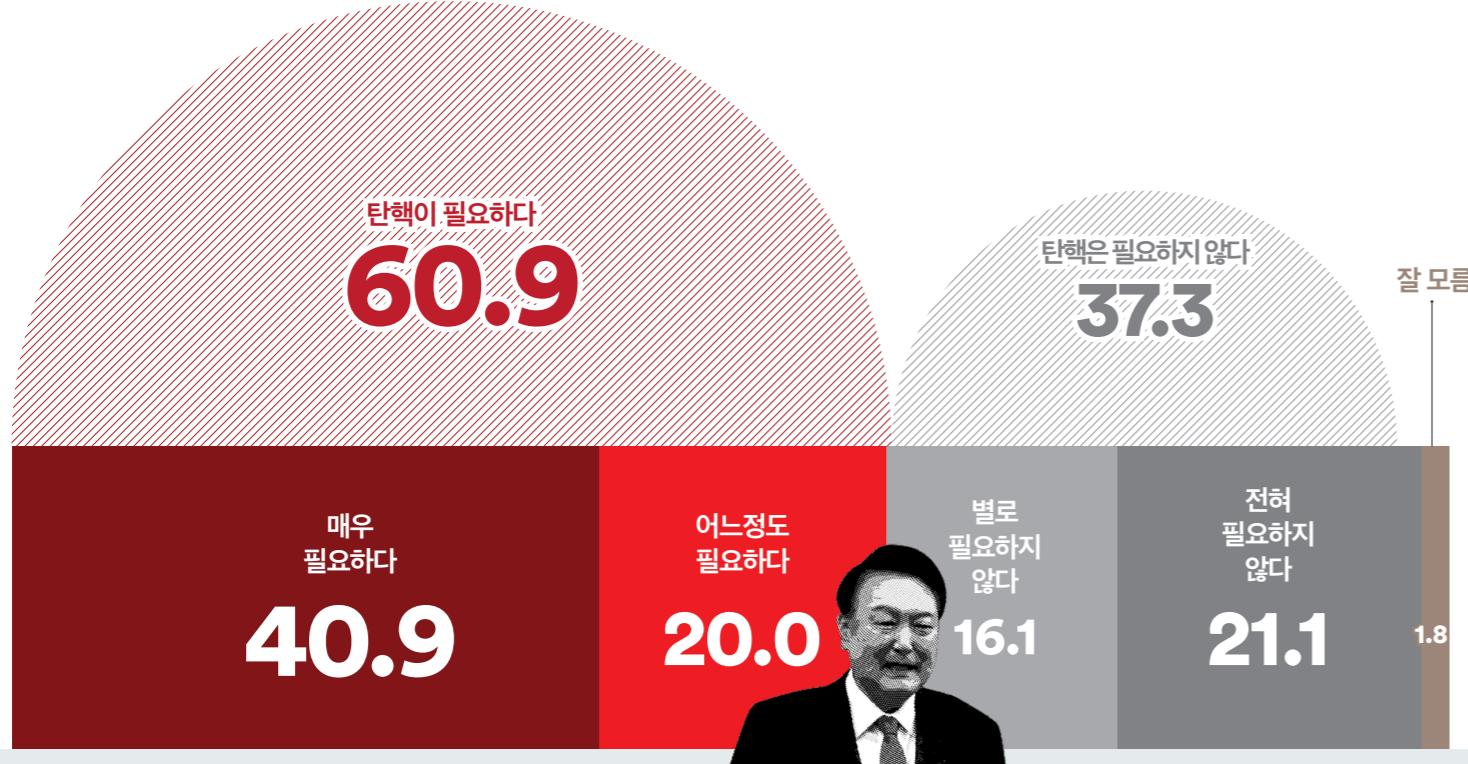
연령

18-29세	61.9	35.0
30대	70.9	26.4
40대	82.7	15.8
50대	74.9	24.6
60대	63.7	34.2
70세이상	44.6	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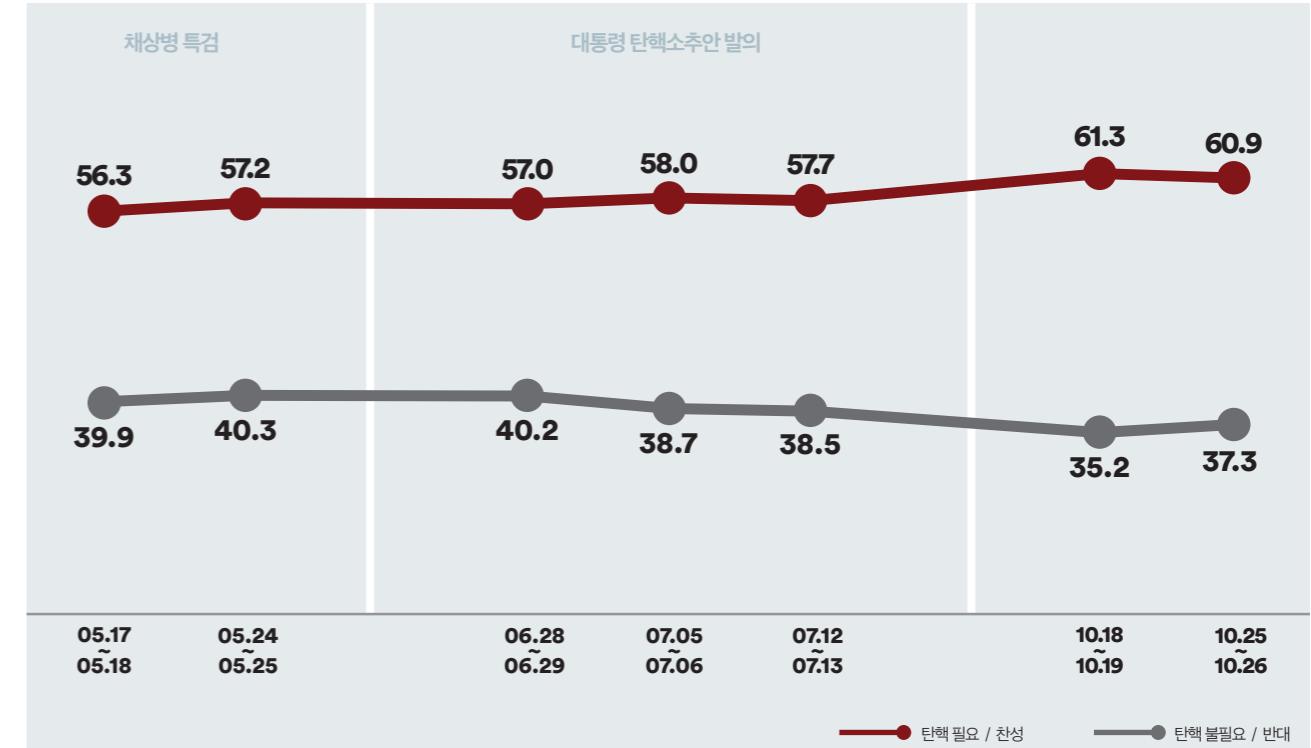
탄핵필요성

Q.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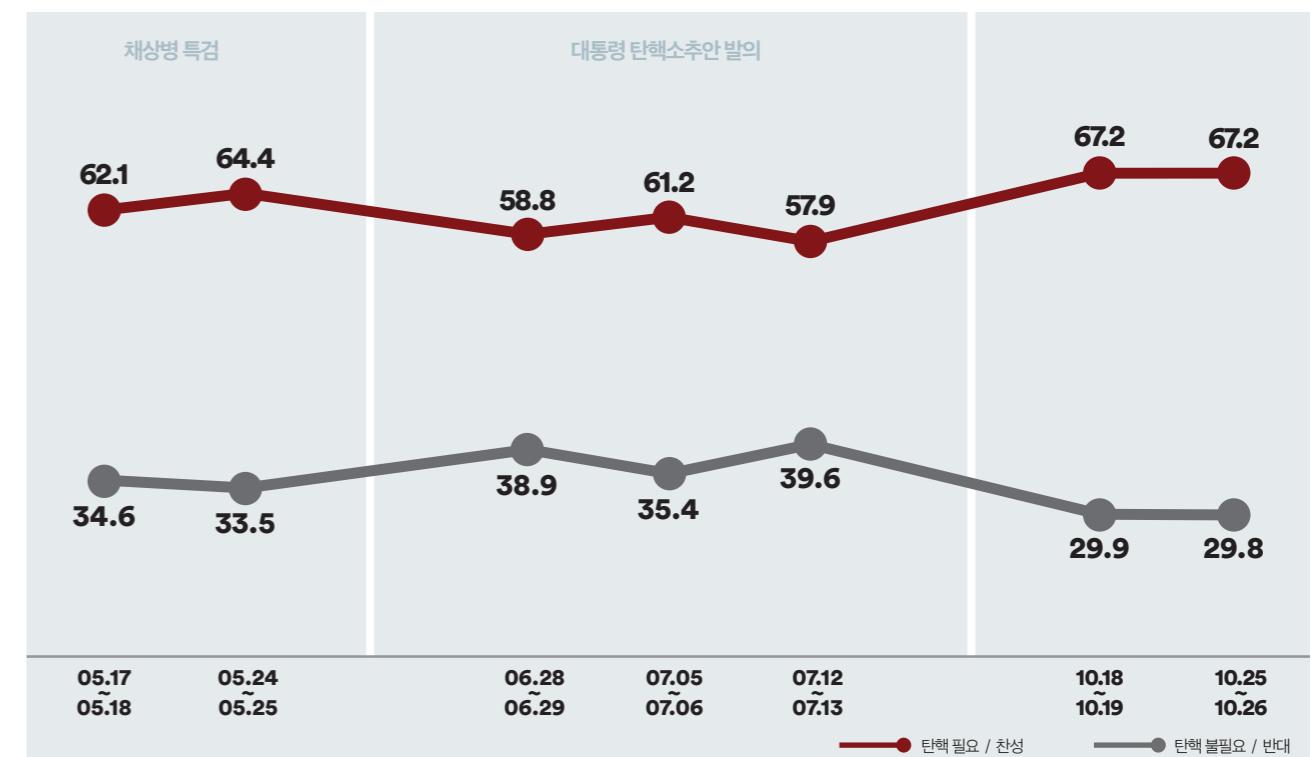
시기별 탄핵의견



ARS



시기별 탄핵의견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5명 중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23.6%p, ARS 37.4%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명 중 8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CATI 82.3%, ARS 81.6%)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CATI조사의 불필요하다 우세, ARS조사에서는 비등하게 갈림

두 조사의 보수층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격차: CATI 34.2%, ARS 12.1%)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10_08

여론조사